

한라시론



양 응 진

제주항도음식보전연구원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마침내 국내에서 발병했다. 17일 아침 뉴스 속보를 통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 됐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며 국내 모든 양돈 농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함으로써 공포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나마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는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돼지 감염병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이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사실이 양돈 농가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결국 대책은 철저한 차단방역 밖에 없다.

정부 관계 부처는 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고 발표 했고 전국일시이동 중지명령(Stand still) 발령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각 지자체들도 유입차단 대책을 세우느라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제주는 전국 어느 지방보다도 양돈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의 돼지고기는 제주의 1차산업 생산물 중에서 감귤의 뒤를 이어 단일 상품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제주의 대표 특산물이다. 그런 제주의 대표상품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 것이다.

축정당국은 나름대로의 비상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농가들 역시 자체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나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작 필요한 것은 전 도민적인 관심이다. 농가들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도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몇 해 전부터 불거진 악취문제와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등으로 양돈 산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강의 전염병으로 양돈 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나비 효과에 불황의 늪에 함께 빠져 들게 될 것이다.

실제로 ASF 발생 국가들에서는 돼지고기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한번 주저앉은 양돈업계는 그 피해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병에 걸렸다는 이미지만으로도 전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욕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전 도민이 관심을 갖는다면 각자의 역할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축정관계당국의 계도에 따르고 힘든 위기를 맞고 있는 양돈 농가들을 응원하며 제주가 ASF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사설

ASF 타지방 발생, 차단 방역 만전 기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ASF는 돼지에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이를만큼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입니다.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ASF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살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칫 ASF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긴급대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한 초동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도 이날 ASF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

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이 전면 반입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운영중인 ASF방역 대책상황실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이와함께 양돈농가 주요 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통제시설을 설치해 차단방역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ASF는 치사율도 높지만 전염력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에서 시작된 ASF는 1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으로 번진데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확산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했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큰 일입니다. 특히 ASF는 다른 가축전염병보다도 치사율이 매우 높아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ASF의 제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조치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통없이 추진 소통협력센터 졸속 우려

제주시가 소통협력센터를 만들면서 오히려 소통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센터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2019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 갈등과 현안을 해결해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120억원(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을 소통협력센터로 활용기로 하고, 최근 60억 원에 매입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행정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민간 위탁

을 통한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하고 10월 중순부터는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진작부터 주민설명회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공감대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전 현실성 검토 등 준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과 현안이 해소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제주시만 해도 행정이 나서도 해결 안되는 갈등이 수도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향후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바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자칫 이름뿐인 소통협력센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편집국 25시

아무도 모른다



송 은 범

행정사회부 차장
seb1119@ihalla.com

5살 난 아이는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조용히 감당하기만 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얼굴에 멍이 들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등 몸에 난 상처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티가 났다.

반면 마음의 상처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어린이집에서 말수가 아주 적었으며, 머리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을 때도 눈물은커녕 말 한마디 하지 않아 집도위가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아이가 장기간에 걸쳐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아이가 사망해 부검을 실시했다. 몸 전체에는 시기를 달리한 33곳의 피하출혈 및 반흔 형태의 상처가 발견됐다.

당시 부검의는 "이미 뇌타박상과 두피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후두부를 제차 가격당해 경막하 출혈까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연속적으로 후두부 충격 혹은 머리를 강하게 흔들면서 뇌부종을 야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인은 계모인 A(36)씨였다. 그녀는 남편과 교제하던 시기 태어난 아이가 몹시 미웠던 모양이다. 친언니에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적개심을 드러냈다.

A씨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절규를 들은 이웃은 "저 여자 또 시작이네, 남의 집일에 신경 쓰는 거 아니, 우리 아이한테만 잘하면 되는거야"라며 무시한다. 어쩌면 이번 사건도 우리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은 아닐까.

뉴스-in

제주산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순항

처리비용 소송 여부 관심

○…경기도 평택항으로 돌아온 제주산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제주시가 안도하는 분위기.

한불은 이달 현재 평택항에 쌓여있는 제주산 압축 폐기물 8000여t 가운데 5700t을 소각 처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2300t은 처리속도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16일까지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순조롭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라며 "한불에서 자비로 하루 100t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 교대로기자

제주농협 “차단방역 강화”

○…제주농협이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지역본부와 시지부, 축협, 양돈농협 등에 방역상황실 운영 및 공동방제단 소독활동을 강화하며 방역대책을 강구.

농협은 제주시 구좌·세화·한림과 서귀포시 대정·중문 등 돼지 사육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소독하고 도축장, 종돈사업소, 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

농협 관계자는 “19일 생식회 56t을 양돈농가 276곳에 보급하고 범농협 ‘심각단계’에 따라 차단방역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 백광탁기자

“속의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공론화 1호 의제인 ‘편안한 교복’ 정책고 수용으로 속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

이 교육감은 18일 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저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이 오늘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를 토대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이 교육감은 또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 표성준기자

부 고

박명호(前 제주대학교 근무) 어머니 신천강씨 란수(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8일 오후 5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20일(금)

▶발인일사: 2019년 9월 21일(토)

▶발인장소: 성산을 공설묘지

▶장 자: 성산을 수산리 가족 선영

남 편 박태보

아 들 박명호 며느리 오순금

명종

강진영

명학

딸 박소심 사 위 고태곤

순미

오항실

순봉

오영춘

※ 연락처 : 박명호 010-5757-9590
박명종 010-9323-021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군위오씨 계생(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19일

아들 송상보(비와) 며느리 문채영(아래)

상택(아래와)

임연재(아)

영수(비와)

고순정(소아과)

딸 송경례 사위 허문웅

경순

김은수

경심

허군진

경생

선정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공산김공 정수(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19일

부 인 강진숙

아 들 김봉용

며느리 강경자

딸 김순희 사 위 강승협

희선

이권희

지아

오상필

래생

김동배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파평윤씨 방자(향년 7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19일

남 편 고시림

아 들 고영남

며느리 최명희

성호

이창미

딸 고승희 사 위 송진호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망 주수에 이론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률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국내 특허 제품이며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함.
도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바이오텍제품임

무료
제공기간

2019.8.27~2019.10.31

※ 모공이 닫힌분은 전혀 효과없음

TEL 064-725-0622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제주편백우드(영)

제주시 보배길32-16
(제주대학교병원쪽)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